
		<b>보 도 자 료</b>		<b>수도권매립지 종료</b>	
		배포일자	2022년 2월 17일(목) 총 2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환경기후정책과	담당자	• 환경정책팀장 한종원 ☎440-3511 • 담당자 임철순 ☎440-3513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인천환경공단. 환경특별시로 힘차게 나아가는 2022년**  
**- 도시 핵심 기능 유지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공단의 노고 치하 -**  
**-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등 환경특별시 인천을 향한 동반자적 역할과 소명 다짐 -**

박남춘 인천시장은 17일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를 방문해 ‘2022년 주요업무와 현안’을 공유하고 자원순환시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따른 협력, 준공 후 20~30년이 지난 하수,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방안 등 직원들의 제안과 건의사항이 이어졌고, 박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 기능 유지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.

인천환경공단은 2007년 설립 후 현재까지 인천지역의 하수, 분뇨, 생활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,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함수율 저감,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생활폐기물 소각열 지역 난방 공급, 소각재 재활용 등으로 연간 약 133억 원에 달하는 비용절

감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.

특히, 최근 코로나19로 늘어난 플라스틱, 종이 등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율도 2020년 66.5%에서 2021년 70%로 향상시켰다. 또한,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좌 하수, 분뇨처리시설 등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복합악취 발생건수가 2020년 13건에서 2021년 5건으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.

앞으로 공단은 자원순환 교육프로그램, 인천환경 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,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, 물 환경, 자원순환 3개 본부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이날 업무보고에서 박 시장은 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,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대변되는 환경 정의와 환경 윤리 회복 과제, 하천과 해양 수질을 깨끗이 되살려야 할 사명, 자원순환 시스템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는 소명들이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 앞에 놓여있다.” 면서, “우리 인천시민과 후손들에게 정말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인천의 하늘과 바다와 땅을 물려주기 위한 소중한 여정을 인천시와 환경공단이 다시금 힘차게 내딛는 올해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.” 고 강조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<참고> 환경공단 2022년 주요업무계획 1부(별첨)